Check for updates

사회과학연구 제37권 4호(202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43-69
http://dx.doi.org/10.16881/jss.2026.10.37.4.43

가족돌봄청년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 고찰*

조 영 윤, 신 주 희, 김 선 경†

우송대학교, 충남연구원, 충남대학교

본 연구는 가족돌봄청년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Arksey와 O'Malley(2005)의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적용하여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내 문헌 62편을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는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5년에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학문 분야가 확대되었다. 연구목적은 경험 및 인식 탐색, 영향 요인 분석, 사회적 인식 및 담론 분석, 제도·정책 개선,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 동향 분석의 6개 범주로 나타났다. 용어는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가족돌봄아동, 가족돌봄청소년 등으로 다양하였다. 핵심이슈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 법·정책·제도 기반 강화, 사회적 인식과 낙인, 일상 변화와 생애 기회 제약, 대상별 맞춤형 지원, 실태 파악 및 연구 축적,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7개였다. 미해결 과제로는 연령 기준 모호함, 연구설계의 제한성, 대상 범위의 협소, 개념적 혼재와 적용 차이, 정책분석·현장전문가 중심 접근,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한계, 2차 자료 편중, 정책·사업 효과성 검증 부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주제범위 문헌고찰, 연구 동향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선경,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E-mail : kimsk@cnu.ac.kr
조영윤,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제1저자)
신주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공동저자)

■ 최초투고일 : 2026년 5월 20일 ■ 심사마감일 : 2026년 9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5일

1. 서 론

최근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돌봄의 부담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었다. 최정원(2025)의 '장애부모를 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 Young Carer)의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만 13세부터 34세까지 4만 3천 83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가족돌봄청년 중 극단적 선택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일반 청년(2.4%)의 4배를 웃돌며, 우울 상태에 해당하는 비율 또한 61.5%에 달해, 일반 청년(8.5%)과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의 이면에는 과도한 가족돌봄 시간이 자리 잡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 주 돌봄자의 경우 32.8시간을 돌봄에 투입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 이는 학업·관계·자기계발을 제약하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 장기적으로는 자립 지연과 경력 단절·사회적 고립과 같은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유정원, 선미정, 임선영, 김도현, 박예은, 2024). 높은 돌봄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도의 인지도는 서비스별로 15.7~23.7%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적 접근성과 정보 격차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적 책임이 명문화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역 단위에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9곳에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김진희, 2024).

이처럼 2020년대 초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이후 학계에서는 삶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정소연, 서홍란, 홍순혜, 2023; 최윤진, 김고은, 2022; 최희경, 2024)와 지원체계 및 정책 분석 연구(강시온, 최은희, 2024; 노혜진, 2023; 신인순, 2024), 그리고 법·제도 및 해외 정책 비교 연구(김정현, 박선영, 2023; 김혜영, 김남옥, 장안식, 석승혜, 2025; 선미정, 유혜선, 2025) 등이 진행되어 왔다. 한편, 국외에서는 Arksey와 O'Malley(2005)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이 돌보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연구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돌보는 청년, 형제자매를 돌보는 청년, 조부모 등 고령의 가족원을 돌보는 청년 등 돌봄 대상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존 지식의 범위를 지도화(mapping)하고 문헌상의 연구 공백을 식별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Lockwood, Dos Santos, & Pap, 2019; Pollock et al., 2021). 최근, 국내에서도 가족돌봄청년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박병금, 2026)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어떠한 주제에 관심을 두고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는 단순히 "어떤 주제가 많이 연구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연구에서 가족돌봄청년의 어떤 문제를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하였는가"와 "현재까지 무엇이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관심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연구 분야의 지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축적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D'Amen, Socci, & Santini,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주요 개념과 주제를 폭넓게 확인하고, 연구의 특성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Arksey & O'Malley, 2005; Levac, Colquhoun, & O'Brien, 2010). 특히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핵심이슈와 연구의 한계 및 미해결 과제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우선순위와 새로운 연구 의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설계와 학술적 후속 논의를 정교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돌봄청년 정의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s, 영케어러)의 정의는 국가 및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케어러' 개념은 Aldridge와 Becker(1993)의 연구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하는 3~18세 아동과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돌보며 성장한 성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념화하였다. 이후 Becker, Dearden, & Aldridge (2000)는 장애,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은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 Families Act) 2014」 제17조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허민숙, 2022). 또한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후기 청소년을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구분하여 논의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돌봄법(Care Act) 2014」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허민숙, 2022). 일본에서는 법률상 영케어러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일본 케어러 연맹은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성인이 수행할 수 있는 돌봄 책임을 맡아 가사, 가족돌봄, 개호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영케어러로 정의하고 있다(조성호, 2024). 한편 일본은 중앙정부의 실태조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상담체계 마련 등을 통해 영케어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점차 확대해 왔다(안주영, 2022; 조성호, 2024).

호주는 '장애나 정신질환, 약물・알코올 의존, 만성 또는 말기 질환을 가진 가족뿐 아니라 친구를 돌보는 젊은 세대'로 정의한다(Addo, Aguilar, Judd-Lam, Hofstaetter, & Poon, 2024, p. 6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9; 서혜지, 김교성, 2024에서 재인용). 호주의 정의는 돌봄 대상을 주로 가족으로 한정하는 영국과 달리, 친구나 이웃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연령 역시 아동・청소년에서 25세 청년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서혜지, 김교성, 2024). 미국은 일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는 8~18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을 'Young Caregiver(영 케어기버)'라고 지칭하나, 연구마다 이들의 명칭과 연령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Hendricks, Kavanaugh, & Bakitas, 2021; 서혜지, 김교성, 2024에서 재인용).

이처럼 국외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지칭하는 용어와 연령기준은 국가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일상생활 지원, 가사, 간병, 정서적 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청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반면 연령의 상・하한, 돌봄 대상자의 범위, 돌봄 활동의 유형과 수준, 돌봄책임의 정도를 개념의 필수요건으로 설정하는지에는 차이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법・정책적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2022)」에서는 만성・장기 신체・정신상의 질병이나 장애,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ADL, IADL 기준)을 돌보거나, 돌봄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에서 34세의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한다. 이후 2025년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기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 정의하여 가족돌봄아동・청년을 포함한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9세에서 3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대구광역시, 2024).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의 상한 연령을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 연령과 일치하는 34세로 설정하거나(김서영, 이재림, 2023; 최영준, 김보영, 김윤영, 임소현, 오서은, 2022; 최희경, 2024), 지역 상황 및 인구 특성에 따라 39세까지 확장하기도 한다(노혜진, 박나리, 2023).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생애과정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성장・발달기에 돌봄 책임을 맡음으로써 복합적인 생애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돌봄 경험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돌봄 과정에서 책임감과 성숙, 공감능력 및 생활기술을 형성하는 긍정적 경험이 보고되는 한편(최윤진, 김고은, 2022; Becker & Becker, 2008), 돌봄책임이 과중한 경우에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업과 사회관계의 제약,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함선유, 2023; Becker & Becker, 2008; Kettell, 2020).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은 성장・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영향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의 연령과 범위는 법・정책 및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법・정책상의 정의는 지원대상을 식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이를 학술연구에서 가족돌봄청년을 개념화하고 연구대상을 식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특성은 연령뿐만 아니라 돌봄대상, 돌봄의 유형과 수준, 돌봄책임의 정도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법・정책상의 연령기준을 가족돌봄청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책 및 학술적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에 걸쳐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였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청

1) 이는 서로 다른 발달단계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문헌에서 '가족돌봄아동', '가족돌봄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 '영케어러' 등으로 대상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명칭과 연령범위를 확인하고, 분석에서는 각 문헌이 설정한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반영하였다.

년을 질병, 장애, 정신건강 문제, 노화 등으로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일상생활 지원, 가사, 신체적·정서적 지원, 간병 등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아동·청소년·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문헌 선정에서는 각 연구가 이러한 가족돌봄 수행을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 또는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 가족돌봄청년 국·내외 연구 동향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체계적·주제범위 문헌고찰과 종단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합하고, 건강·교육·관계 등 다차원적 분석틀을 정립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Bowman Grangel, McMahon, Dunne, & Gallagher, 2024; Fung, Gardener, & Farquhar, 2025; Lacey, Xue, & McMunn, 2022; Pilato et al., 2024). 연구 초기에는 가족돌봄청년의 존재와 어려움을 밝히는 기술적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이후 연구들은 건강, 교육, 관계, 정책 등 주제별 분석을 통해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돌봄 경험과 다양한 삶의 영역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연구들은 돌봄의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관계적·사회적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함께 탐색하고 있다. Lacey 외(2022)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비 돌봄자보다 정신적·신체적 건강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Fung 외(2025)는 질적 연구를 종합해 가족돌봄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 영역을 '정보', '정서적 지지', '관계', '서비스 접근성'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청소년기 특성과 관련된 '교육'과 '부모-자녀 관계'를 추가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Pilato 외(2024)는 프랑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수행 여부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교하여, 돌봄청년이 비돌봄 또래에 비해 낮은 삶의 질과 정신건강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여학생·저소득층·이민자 가정(집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짐을 밝혔다. Bowman Grangel 외(2024)는 아일랜드 국가종단조사를 활용해 17세 시점에 부모를 돌보는 청년의 우울 위험이 비 돌봄자보다 3.67배 높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돌봄 상태의 영향이 20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속하지는 않았음을 보고했다. 다만 부모 돌봄청년 집단 내에서는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와 또래 신뢰가 정신건강의 주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요약하면, 국외 연구 동향은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건강-교육-관계-사회구조의 다층적 틀 속에서 분석하며, 개인적 고통을 사회적 지원·정책 체계와 연계해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계적 문헌고찰, 주제범위 문헌고찰, 종단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결과를 통합하고, 이를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실천적 과제에 연결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2020년대에 들어서야 가족돌봄청년이 독립적 연구 영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삶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정소연 외, 2023; 최윤진, 김고은, 2022; 최희경, 2024)는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정서적 부담, 관계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돌봄 과정에서 나타나는 책임감과 자기희생, 자존감과 고립감 등 정서적 이중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원체계 및 정책 분석 연구(강시온, 최은희, 2024; 노혜진, 2023; 신인순, 2024)는 국내 돌봄 지원 사업과 정책 구조를 평가하며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성과 기관 간 연계, 서비스 중복 문제 등을 확인하였다. 셋째, 법·제도 및 해외 정책 비교 연구(김정현, 박선영, 2023; 김혜영 외, 2025; 선미정, 유혜선, 2025)는 조례·법률 및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정책이 법적 정의와 전달체계 통합 측면에서 여전히 초기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는 이러한 세 축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정신적 부담과 사회적 취약성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어 왔으며,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정책 논의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간 이론적 연계나 개념적 통합 시도는 아직 미비하며, 해외 연구처럼 건강·교육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방법

1) 주제범위 문헌고찰

Peters 외(2020)에 따르면,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주제에 대해 이용 가능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매핑(mapping)하고, 핵심개념, 이론, 증거 출처 및 연구 격차를 식별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문헌의 범위와 특성을 탐색하고, 이용 가능한 증거를 요약하며, 지식 격차와 향후 연구 방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히 문헌이 복잡하고 이질적일 때 유용하다(Peters et al., 2020).[2] 이 과정에서 실제 문헌 자료에서 의미 있는 범주와 주제를 자연스럽게 도출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식을 택하였다. 내용분석은 하나의 카테고리 체계를 이용하여 문헌을 고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Rubin & Babbie, 2008; 김성경, 2013에서 재인용). 특히 내용분석은 기존 학술 문헌의 정보를 유목화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 관련 학문 분야의 정체성과 발전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Mahoney, Buboltz, Soper, Doverspike, & Simoneaux,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분석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내용분석의 타당성을 결정한다는 관점(채구묵, 2002)에 기초하여, 분석 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다.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아직 초기 축적 단계에 있으며, 연구 분야·방법·주제·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 동향과 핵심 의제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틀은 Peters 외(2020)가 제시한 Joanna Briggs Institute(JBI) 주제범위 문헌고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Population, Concept, Context (PCC)'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3] 연구대상(Population)은 문헌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식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를 중심

2) 반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은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영역에서 문헌의 질을 평가하고 효과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2022년 전후로 본격화된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제범위 문헌고찰 접근법이 더 적절하다는 선행연구의 제안을 참고하였다(서현주, 2020).

3) PCC는 문헌검색 단계에서 연구 질문과 포함 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지만, JBI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론에서는 문헌 선정 이후 자료 추출(charting)과 결과 분석 및 제시의 구조를 형성하는 분석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Peters et al.,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CC 요소를 단순한 검색 기준이 아닌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의 구조적 틀로 적용하였다.

으로 분석하였다. 핵심개념(Concept)은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연구 목적, 핵심이슈, 연구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맥락(Context)은 연구가 수행된 학문 분야, 출판연도, 연구 유형을 포함하였다.

2) 문헌수집 및 분석방법

Arksey와 O'Malley(2005)는 연구자들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5단계의 방법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이후 Levac 외(2010)는 이 틀을 구체화하여 각 단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절차를 참고하여 연구 질문 도출, 관련 문헌 식별, 문헌 선정, 자료 추출 및 정리, 결과 수집・요약・보고의 단계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1단계인 연구질문 확인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한 선행연구(Hendricks et al., 2021; Keating & Eales, 2017; Yin, 2024)를 참고하여 "국내 가족돌봄청년 관련 문헌에서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질문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인 관련 문헌 식별에서는 Levac 외(2010)의 제안에 따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지 않고 KCI, RISS, KISS, DBpia 및 ScienceON의 5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검색을 수행하였으며, 분석대상 문헌의 출판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로 제한하였다. 검색어는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돌봄아동', '가족돌봄 아동', '가족돌봄청(소)년', '영케어러', '영 케어러', 'Young Carer', 'Young Adult Carer'를 사용하였다. 검색어는 데이터베이스별 검색체계에 따라 제목, 초록 및 키워드 영역에 적용하였다.

문헌의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일 것. 둘째,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청년 또는 영케어러를 주요 연구대상 또는 분석대상으로 다룰 것. 셋째, 사회과학 분야의 KCI 등재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일 것. 넷째,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개인・가족・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과학적 이슈로 보고, 분석 범위를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문헌으로 설정하였다(유정원, 선미정, 2024). 또한 국내 연구동향을 학술적으로 검증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김성경, 2013; 안혜주, 이제경, 2025).

3단계인 문헌 선정에서는 앞서 설정한 포함 기준에 따라 검색된 문헌의 제목・초록 및 원문을 검토하여 최종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검색 결과 총 1,405편의 문헌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중복문헌 181편은 EndNote를 활용하여 제거하였으며, 가족돌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문헌 964편과 사회과학 분야 외 문헌 144편을 제외하여 116편을 1차 선정하였다. 이후 1차 선정 문헌의 제목・초록 및 원문을 검토하여 학술지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문헌, 연구주제 또는 연구대상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 학술논문 이외의 문헌 및 원문 확인이 불가능한 문헌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62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검색과 선정은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문헌의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연구자와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4단계인 자료 추출 및 정리(data charting)에서는 최종 선정된 문헌을 출판연도순으로 배열하고,

각 문헌에 고유한 문헌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후 문헌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출판연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연구방법, 돌봄자 지칭 용어, 핵심이슈 및 미해결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핵심이슈와 미해결 과제는 문헌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과 용어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추출한 뒤, 내용상 유사성과 연구맥락을 고려하여 범주화하였다. 자료 정리와 범주화 과정은 엑셀(Excel)을 활용하여 관리하였다.

5단계인 결과 수집・요약・보고에서는 개별 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거나 인과적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의 전반적인 분포와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출판연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돌봄자 지칭 용어를 수량적으로 요약하고, 문헌에서 제기된 핵심이슈와 미해결 과제를 내용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 출판연도

본 연구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발표된 관련 문헌의 연도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2년 3편(4.8%), 2023년 11편(17.7%), 2024년 18편(29.0%), 2025년 20편(32.3%), 2026년 10편(16.1%)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문헌은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5년에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2026년에도 검색 종료시점인 7월까지 관련 연구 10편이 확인되었다. 다만 2026년은 부분연도 자료이므로 전년도와 직접 비교하여 연간 증감 추세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포는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최근 국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판연도별 분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의 축적 과정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파른 양적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제도적 대응과 정책 논의의 확대는 가족돌봄청년 관련 연구가 증가한 사회적・정책적 맥락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Leu & Becker,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초기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대응이 부족한 '무반응 국가' 수준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내 연구의 급증 역시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정책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학문분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학술지 분류체계에서 사회과학은 다양한 세부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대분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6).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무역학, 정치외교학, 경영학, 교육학, 지역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회계학, 법학, 군사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국제・지역개발학, 관광학 등을 사회과학 분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과학 분야의 세부 학문분류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문헌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해당 사회과학 분야로 분류된 학술지에 게재된 가족돌봄청년 관련 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별도의 제외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국내 문헌을 고찰한 결과,

<표 1> 학문분야 분포

학문 분야	학술지명	문헌 수(편)	소계(편)	비중(%)
교육학	교육문화연구	1	2	3.2
	정서・행동 장애연구	1		
사회복지학	미래사회복지연구	1	30	48.4
	복지상담교육연구	1		
	비판과 사회정책	1		
	사회보장연구	2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4		
	사회복지정책	2		
	청소년복지연구	1		
	한국가족복지학	8		
	한국사회복지교육	2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		
	한국사회복지학	4		
	한국아동복지학	2		
	한국장애인복지학	1		
정책학	Crisisonomy	1	1	1.6
여성학	여성학연구	1	1	1.6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1	1	1.6
복합학	한국과 세계	1	4	6.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		
	한국과 국제사회	1		
	산업진흥연구	1		
사회과학일반	청소년학연구	6	23	37.1
	가족과 가족치료	1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		
	인문사회21	1		
	사회과학리뷰	1		
	가족과 문화	3		
	공공정책연구	2		
	도시연구	1		
	보건사회연구	2		
	사회과학연구	1		
	인문사회과학연구	2		
계		62	62	100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 학문 분야별로는 사회복지학이 30편(48.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과학일반 23편(37.1%), 복합학 4편(6.5%), 교육학 2편(3.2%), 정책학・여성학・사회학이 각각 1편(1.6%)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주로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과학 전반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초기 영케어러 연구가 주로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적 지

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한 바 있다(Joseph, Sempik, Leu, & Becker, 2020).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 학업중단, 노동시장 진입, 가족관계, 젠더 불평등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Aldridge, 2018; Leu & Becker, 2017).

(3)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의 연구 목적은 총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경험 및 인식 탐색'이 28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45.2%)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분석과 제안'이 16편(25.8%), '돌봄 부담 등 영향 요인 분석'이 13편(21.0%)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사회적 인식 및 담론 분석'이 3편(4.8%),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 분석'과 '연구 동향 분석'이 각각 1편(1.6%)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국외 가족돌봄청년 연구의 흐름과도 유사하다. 초기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돌봄 경험, 역할 인식, 심리·사회적 어려움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Leu & Becker, 2017), 이후에는 정책 지원체계, 정신건강 및 교육 성과, 돌봄 부담의 영향요인, 서비스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seph et al., 2020; Saragosa et al., 2022).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의 연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질적연구'가 45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72.6%)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양적연구'가 16편(25.8%), '혼합연구'가 1편(1.6%)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양적 접근보다 개인의 돌봄 경험과 인식, 맥락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접근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표 2> 연구목적별 분포

연구 방향	문헌 수(편)	비중(%)
가족돌봄 청년의 경험 및 인식 탐색	28	45.2
돌봄 부담 등 영향 요인 분석	13	21.0
사회적 인식 및 담론 분석	3	4.8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분석과 제안	16	25.8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효과 분석	1	1.6
연구 동향 분석	1	1.6
계	62	100

<표 3> 연구방법분포

연구 유형	문헌 수(편)	비중(%)
질적연구	45	72.6
양적연구	16	25.8
혼합연구	1	1.6
계	62	100

있다. 국외에서도 초기 연구는 인터뷰, 사례연구, 현상학적 접근 등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가족돌봄청년의 경험과 정체성, 가족관계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Becker, 2007; Leu & Becker, 2017). 반면 최근 국외연구에서는 영케어러의 정신건강, 삶의 질, 학업 성취, 돌봄 부담 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양적 연구와 혼합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Joseph et al., 2020; Saragosa et al., 2022). 이는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 역시 향후 경험 탐색 중심의 연구를 넘어 다양한 변수 간 관계 검증과 정책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돌봄자 지칭 용어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헌에서는 돌봄자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문헌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총 31편(50.0%)에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라는 용어가 16편(25.8%)에서 사용되어, 젊은 세대의 가족돌봄을 지칭하는 국제적 개념이 국내 연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돌봄청소년'(6편, 9.7%), '가족돌봄아동'(3편, 4.8%), '가족돌봄청(소)년'(4편, 6.5%), '가족돌봄아동・청소년'(2편, 3.2%) 등의 용어도 일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연구의 확산 과정에서, 학계와 현장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노혜진(2023)은 국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들이 '39세 이하' 등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 역시 돌봄 관계・동거 여부・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가족을 돌보는 상황은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념 적용 과정에서 혼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4> 참조).

2) 가족돌봄청년 관련 문헌에서 제기된 이슈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제기된 이슈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여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제시하지 않고 내용상 공통된 의미와 연구맥락을 기준으로 유사 내용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우울', '우울감 증가', '우울 수준이 높음', '정신건강 악화' 등 표현은 다르더라도 가족돌봄청년의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경우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문제'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였다. 또한, 복수의 이슈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연구 목적 및 주요 분석내용

<표 4> 돌봄자 지칭 용어

돌봄자 지칭 용어	문헌 수(편)	비중(%)
가족돌봄청년	31	50.0
영케어러	16	25.8
가족돌봄아동	3	4.8
가족돌봄아동・청소년	2	3.2
가족돌봄청소년	6	9.7
가족돌봄청(소)년	4	6.5
계	62	100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가장 핵심적인 범주에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주요 이슈는 총 7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표 5> 참조). 핵심이슈별로는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상 변화와 생애기회 제약'에 관한 연구가 20편(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개선' 11편(17.7%), '법・정책・제도 기반 강화 필요' 10편(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와 '사회적 인식과 낙인 문제'가 각각 7편(11.3%), '돌봄 대상별 특성 및 맞춤형 지원' 5편(8.1%),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연구 축적 필요' 2편(3.2%) 순이었다.

첫째,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와 관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심리적 소진 및 자기돌봄의 어려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가족돌봄으로 인한 시간적・정서적 부담이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스트레스와 외로움,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하거나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둘째, 법・정책・제도 기반 강화 필요에 관한 논의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및 법률의 제정・개정, 지원대상과 기준의 정비,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정책 방향 모색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사회적 인식과 낙인과 관련해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돌봄 역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 젠더 규범에 따른 돌봄 책임의 불균형, 돌봄 책임의 개인 및 가족으로의 전가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가족돌봄을 효행이나 가족의 의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돌봄청년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는 권리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상 변화와 생애기회 제약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핵심이슈 중 하나였다. 가족돌봄청년은 충분한 준비 없이 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학업, 취업, 진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등 청년기의 주요 생애과업 수행에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미래계획을 유예하거나 수정하고, 근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학업과 취업을 중단하는 등 생애 전반의 발달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돌봄 대상별 특성 및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 대상의 장애 및 질환 특성, 가족구조, 주 돌봄 여부, 연령,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돌봄 경험과 욕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가족, 조손가정, 위탁가정, 외동 가족돌봄청년, NEET 상태의 청년, 주 돌봄자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섯째,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연구 축적의 필요와 관련해서는 가족돌봄청년이 비가시적인 집단으로 존재함에 따라 정확한 규모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자료와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와 특성, 돌봄 실태 및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개선에 관한 논의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과 발굴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이 '숨겨진 집단'으

<표 5> 가족돌봄청년 관련 문헌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

핵심이슈	핵심이슈 주요 내용
①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	• 우울 수준 증가 및 전반적인 정신건강 위기 심화 •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 간의 순차적 매개 경로 확인 • 자기돌봄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 확대
	해당 문헌 번호 3, 11, 16, 19, 30, 54, 58
	도출 근거 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 심리적 소진, 자기돌봄 등 심리·정서적 결과를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을 통합함
② 법·정책·제도 기반 강화 필요	•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조례 개정 및 법률 제정 필요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정책 방향 모색 필요
	해당 문헌 번호 9, 12, 20, 23, 24, 31, 33, 36, 42, 46
	도출 근거 법률·조례의 미비, 정책적 지원체계, 국내외 정책 비교, 제도 개선 등 제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을 통합함
③ 사회적 인식과 낙인 문제	• 가족돌봄을 개인·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 돌봄 제공자를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닌 돌봄 수행자로만 인식하는 한계 • 돌봄 역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 • 젠더 규범에 따른 돌봄 책임의 불균형 • 효행 중심의 인식에서 권리 중심의 인식으로 전환 필요 • 사회적 낙인과 자기은폐 → 내면화된 낙인 → 도움 요청 냉소주의
	해당 문헌 번호 13, 27, 32, 45, 50, 55, 60
	도출 근거 가족돌봄의 가족책임화, 효행 규범, 젠더 규범, 낙인, 자기은폐, 권리 관점 등의 사회문화적 문제를 통합
④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상 변화와 생애기회 제약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역할을 수행함 • 돌봄으로 인해 학업·취업·진로·대인관계 등 제약 발생 • 가족 내 역할 변화로 인한 책임 부담 증가 • 개인의 미래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 • 돌봄 부담으로 인해 파트타임 등으로 취업 형태 변경 •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되는 발달기회의 상실
	해당 문헌 번호 1, 2, 5, 6, 7, 8, 14, 18, 21, 22, 29, 37, 39, 43, 49, 51, 52, 59, 61, 62
	도출 근거 학업, 진로, 취업, 대인관계, 미래계획, 발달과업 등 돌봄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기회 손실을 통합
⑤ 돌봄 대상별 특성 및 맞춤형 지원	• 대상별 특성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성 증대 • 돌봄책임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지원 • 외동, 주돌봄자, NEET 등 가족돌봄청년의 특성에 따른 지원 욕구 차이 • 돌봄 대상의 장애·질환 및 가족구조에 따른 돌봄 부담의 차이 (대리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청소년, 외동, 조손가정, 지적장애 부모 등)
	해당 문헌 번호 4, 25, 28, 38, 40
	도출 근거 장애인 가족, 조손가정, 위탁가정, 외동, 주 돌봄자, NEET 등 특정 대상의 특수성과 차별화된 지원 요구를 통합함

핵심이슈	핵심이슈 주요 내용
⑥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연구 축적 필요	• 가족돌봄청년의 실제 규모와 지원 수요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함 • 가족돌봄청년의 규모, 실태조사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필요 • 연구가 부족한 영역 및 후속연구 필요성
	해당 문헌 번호 41, 56
	도출 근거 가족돌봄청년의 규모 추정, 실태조사, 현황 및 기초 자료 구축과 함께 기존 연구의 주제・대상・방법・연구 동향 등을 검토한 연구를 통합
⑦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개선	• '숨겨진 집단'으로 분류되어 발굴 및 지원체계 부족 • '시간 빈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과 개입의 어려움 • 단일 기관 중심 대응의 한계 • 효율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서비스 체계 정비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공공・민간・학교・의료기관 등) • 일반 청년 대비 의료 접근성 낮아 의료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 •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의 통합적 지원체계로서의 한계와 지역밀착형 발굴・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
	해당 문헌 번호 10, 15, 17, 26, 34, 35, 44, 47, 48, 53, 57
	도출 근거 발굴, 사각지대, 전문인력, 기관 간 연계, 민관협력, 학교・의료기관 연계, 청년미래센터 등 지원체계와 전달체계를 통합

로 존재하고 시간 빈곤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 단일 기관 중심의 대응이 갖는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공공기관, 민간복지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청년미래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발굴 및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종합하면,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초기의 개인적 돌봄 경험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에서 점차 권리, 정책・제도, 맞춤형 지원, 발굴 및 전달체계 등 구조적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의 관심이 가족돌봄청년의 개인적 돌봄 경험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넘어, 돌봄의 사회적 책임, 정책・제도 및 지원체계의 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상 변화와 생애기회 제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확인되었으며, 각각 2편, 5편, 4편, 6편, 3편으로 나타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핵심 이슈였다. '법・정책・제도 기반 강화 필요'는 2023년 2편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4편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개선' 역시 2023년 1편에서 2024년 3편, 2025년 5편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문제'는 2024년 3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사회적 인식과 낙인 문제'는 2023년부터 나타나 2024년 이후 매년 2편씩 확인되었다. '돌봄 대상별 특성 및 맞춤형 지원'은 2023년 이후 꾸준히 연구되었으나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가족돌봄청년 실태 및 연구 축적 필요'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편씩, 총 2편에 불과하여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와 현황, 기존 연구의 축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핵심이슈 교차분석

핵심이슈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①	1	1	3	-	2	7
②	-	2	4	4	-	10
③	-	1	2	2	2	7
④	2	5	4	6	3	20
⑤	-	1	2	2	-	5
⑥	-	-	-	1	1	2
⑦	-	1	3	5	2	11
합계	3	11	18	20	10	62

3) 가족돌봄청년 관련 문헌에서 제시한 한계

가족돌봄청년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미해결된 과제를 분석한 결과, 대상 범위의 협소성, 연구설계의 제한성, 2차 자료에 편중된 연구, 정책 분석 및 현장 전문가 위주의 접근, 연령 기준의 모호성, 개념적 혼재와 적용상의 차이, 해외 사례와 국내 현실 차이 미반영, 정책 및 사업 효과성 검증 부족 등 8개 범주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하나의 연구에서 둘 이상의 한계가 제시된 경우에는 복수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기준 모호함'은 8편에서 확인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거나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함께 다루어 발달단계에 따른 돌봄 경험의 차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청년 연구에서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구설계의 제한성'은 26편에서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횡단적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변수 간 인과관계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장기 추적자료의 부족, 비교집단의 부재, 소규모 질적 표본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양적 조사를 통한 대규모 실태 파악의 필요성과 함께 가족돌봄청년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과 강점을 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가 가족돌봄청년의 경험과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시간적 변화와 인과적 관계, 보호요인 및 긍정적 측면을 규명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대상 범위 협소성'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미해결된 과제로서, 총 43편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돌봄 유형에 한정된 표본, 가족돌봄청년 내부의 다양한 하위집단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점, 도시와 농촌 간 차이 및 돌봄 강도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정 연령대나 가족관계에 연구대상이 집중되어 다른 생애주기 또는 가족돌봄 경험을 포괄하지 못한 점도 언급되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기의 가족돌봄 경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20대와 30대의 경험을 세분화하여 비교할 필요성이 제시되는 등 가족돌봄청년의 이질적인 생애주기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념적 혼재와 적용상의 차이'는 2편에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영케어러', '가족돌봄청소년', '가족돌봄청년'

<표 7> 가족돌봄청년 관련 문헌에서 제시한 한계점

한계점	세부 한계 내용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기준 모호함	•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 • 발달 단계에 따른 돌봄 경험의 차이 구분 안 됨
	해당 문헌 번호 6, 26, 37, 40, 53, 58, 59, 61
연구설계의 제한성	• 횡단적 자료로 인과관계 추론에 한계 존재 • 장기 추적자료 부족으로 변화 분석 제한 • 비교집단 부재로 결과 해석의 상대성 부족 • 정량 지표에서 민감 문항 과소보고 가능성 존재 • 영케어러들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과 강점을 밝힐 필요 • 양적 조사를 통해 많은 영케어러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해당 문헌 번호 3, 6, 11, 17, 19, 21, 23, 24, 27, 28, 30, 34, 37, 39, 41, 44, 46, 47, 50, 52, 54, 55, 58, 59, 60, 62
대상 범위 협소	• 특정 지역・돌봄 유형에 한정된 표본 구성 • 가족돌봄청년 내 다양한 하위집단의 경험 미포함 • 지역 간(도시・농촌)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돌봄 강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 • 부모와 현재 교류하지 않는 자녀의 경험이 연구에서 포착되지 않음 • 성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영케어러의 가족돌봄 과정을 회고적으로 탐색 • 20대와 30대의 가족돌봄 경험을 충분히 비교하고 이해할 필요 • 19세 이하 청소년기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함. 20대 미만 중・고등학령기 영케어러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있음.
	해당 문헌 번호 1, 2, 3, 4, 7, 8, 9, 11, 13, 14, 15, 16, 17, 18, 20, 22, 23, 24, 26, 28, 29, 30, 32, 35, 37, 39, 40, 44, 45, 46,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개념적 혼재와 적용상의 차이	• 영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는데, 돌봄자 지칭 용어 간 정의와 범위가 일관되지 않음 • 법・제도 및 정책 간 연령 범위의 불일치 존재 • 정책에서 설정된 개념과 실제 현장에서의 대상자 발굴 및 적용 간 괴리 존재
	해당 문헌 번호 6, 27
정책 분석 및 현장 전문가 위주의 접근	• 수혜자 및 현장 실천 주체의 경험・목소리 반영 부족 • 법제 간 연계 및 정책-현장 간 연계 부족 • 정책 효과의 현장 체감도에 대한 검토 부족 •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한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문헌 번호 10, 15, 20, 22, 24, 31, 32, 33, 35, 45, 51
해외 사례와 국내 현실 차이 미반영	•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대한 고려 부족 •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미흡 • 국내 사회・제도적 맥락 반영 부족 • 한국 맥락에서의 실현 가능성 검토 부족
	문헌 번호 15, 39, 52

한계점	세부 한계 내용
2차 자료에 편중된 연구	• 미디어 사례 및 온라인 텍스트 중심의 자료 편중 • 담론 중심 분석으로 실증적 검토 제한 • 직접적인 현장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작성된 자료를 활용함(사업 안내자료, 지원신청서, 공고문 등을 통해 사업 현황을 분석)
	해당 문헌 번호 10, 13, 14, 16, 23, 27, 34, 38, 41, 53, 54, 55, 57
정책 및 사업 효과성 검증 부족	• 단기 성과 중심 평가로 장기적 변화 검토 미흡(이용률, 참여율 등) • 현장 기반의 종단적 · 축적된 데이터 부족 • 정책 집행 · 운영에 대한 과정 분석 부족
	해당 문헌 번호 15, 39, 57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개념의 연령 범위와 대상 범위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 제도에서 설정한 대상 기준과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청년 연구의 축적을 위해서는 용어와 개념, 연령 및 대상 범위에 대한 학문적 · 정책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분석 및 현장 전문가 위주의 접근'은 11편에서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책 및 법 · 제도 분석이나 현장 전문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혜자인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제시되었다. 또한, 정책과 현장 간 연계, 정책의 현장 체감도 및 실제 적용과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가 제도적 차원의 분석을 넘어 당사자의 경험과 실제 서비스 이용과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와 국내 현실 차이 미반영'은 3편에서 나타났다. 해외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과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면서도 국가 간 제도적 차이나 국내 사회 · 정책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비교를 넘어 한국의 사회 · 문화적 환경과 정책 및 전달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2차 자료에 편중된 연구'는 13편에서 나타났다. 기존 사업 안내자료, 지원신청서, 공고문 등의 문서자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사례, 온라인 텍스트 등을 활용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회적 담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당사자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현장의 구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돌봄의 강도나 실제 돌봄 시간과 같은 세부적인 경험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사업 효과성 검증 부족'은 3편에서 확인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업의 이용률이나 참여율 등 단기적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거나, 사업 운영 및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미해결된 과제로 제시하였다.

5. 함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정책적・실천적 함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적 함의로는 첫째,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2022년 이후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나, 연구목적, 연구방법, 사용 용어, 핵심이슈 및 미해결 과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최근 사회적 지원과 정책 개입이 필요한 공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의 흐름과 특성, 공백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 연구 분야의 개념, 핵심이슈 및 연구 공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평가된다(Arksey & O'Malley, 2005). Levac 외(2010)는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부족할 경우 연구가 집중된 영역과 상대적으로 미비한 영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후속연구 및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돌봄청년 연구 분야의 지식구조와 연구 흐름을 지도화하고, 향후 연구 및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연구대상의 범위와 선정기준이 연구마다 상이하여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비교・종합하기 어려운 연구구조를 보였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돌봄 경험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거나 특정 장애를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청년, 특정 지역 거주자, 니트(NEET) 청년 등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 간 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국외연구에서는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 특정 돌봄 상황에 놓인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관련 경험과 특성을 반영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들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주제범위 문헌고찰도 이루어지고 있다(D'Amen et al., 2021). 이는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공통된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축적하는 것이 가족돌봄청년 연구의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다학제적 연구 확산과 개념 혼재 양상은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문 간 개념 정의와 대상 기준의 불일치 문제를 드러낸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대상 연령과 돌봄 범위 역시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개념적 혼재는 연구결과 간의 비교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 대상의 범위를 일관되게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D'Amen et al., 2021).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가족돌봄청소년'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및 초기 성인기 청년을 포함하고 있어 발달단계와 돌봄 경험의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법・제도상 적용되는 연령 기준과 실제 돌봄 수행 형태 및 돌봄 지속 경험을 구분하여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 연령 기준뿐 아니라 돌봄 시작 시점, 돌봄 강도, 생애과정에서의 지속성 등을 함께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는 가족돌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경험을 탐색하고, 관련 요인을 검토하는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적 개입과 효과성 검증으로 충분히 확장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에서는 정신건강, 돌봄부담, 학업・진로, 정책・제도 및 사회적 낙인 등 가족돌봄청년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요인 및 기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와 경험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적용한 뒤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가 경험과 문제의 탐색, 관련 요인의 검토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지원모델 개발,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성 검증 연구는 제한적으로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학술적 공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욕구와 관련 요인을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와 지속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돌봄 대상, 돌봄기간, 현재 돌봄 여부 및 돌봄의 강도는 연구와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 설계 과정에서는 연령 기준뿐 아니라 돌봄의 지속성 및 강도, 돌봄 대상의 특성, 가족 내 역할과 책임 수준, 지원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차원적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van der Werf, Luttik, de Boer, Roodbol, & Paans, 2022). 이러한 다차원적 기준은 정책지원 대상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실제 돌봄 부담이 높은 아동・청소년・청년이 지원체계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법・정책・제도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전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확인된 만큼,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은 단편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 지원체계의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청년이 우울, 만성 스트레스, 자기돌봄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지원, 심리상담, 자기돌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진로・취업・대인관계 전반에서 발달기회의 제약이 확인된 만큼, 가족돌봄청년을 단순 '돌봄 제공자'가 아닌 성장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발달과업 지연이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되지 않도록 교육・고용・자립 지원을 연계한 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돌봄청년이 정책 및 서비스 체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기 발굴과 연계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고, 돌봄 부담과 낙인 경험으로 인해 지원체계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행정복지센터, 청년지원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청년의 조기 발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

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잠재적 가족돌봄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굴 이후에는 개인별 돌봄 상황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사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돌봄 대상의 특성, 돌봄 강도, 연령,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에 따라 욕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 지원보다 상담, 심리·정서 지원, 학업·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맞춤형 사례관리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농촌지역, 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등 상대적으로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운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굴 및 접근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회성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웹·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지원체계와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Elf, Skärsäter, & Krevers, 2011).

둘째, 가족돌봄청년 지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에는 국내외 가족돌봄청년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 관련 법·정책의 변화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계에서 제시되는 연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간의 간극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Leu et al., 2020). 이를 통해 담당자가 가족돌봄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화하는 정책 및 연구 동향에 근거하여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 및 사업 효과성 검증 부족이라는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사후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확대를 넘어 지원이 실제 당사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가족돌봄청년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도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분석 대상을 사회과학 분야의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기관 발간자료 및 다른 학문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학술문헌의 경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의 범주화 과정에서 연구자 간 합의를 거쳤으나, 연구자 간 합의 신뢰도(Cohen's kappa)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자 간 일치도 지표를 제시하여 분석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돌봄 대상, 발달단계, 돌봄 역할 및 돌봄 강도에 따라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 공백과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는 양적·질적 자료를 결합한 혼합연구, 대상 특성별 비교연구 및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지원의 조건과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심화시키고,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 ] 안의 숫자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문헌 식별번호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15] 강시온·최은희 (2024).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충북지역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3), 33-65.

[16] 강희주·정익중·이진혁 (2024). 장애인 가구 영케어러(young carer)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돌봄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5), 249-278.

관계부처 합동 (2022).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33] 구슬이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사회복지정책>, 52(3), 103-138.

[53] 권나현 외 (2026). 영케어러의 자기돌봄 경험: 나로 돌아가는 길. <Crisisonomy>, 22(2), 79-100.

[4] 권지성·좌현숙·최서경 (2023).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대리가정위탁 보호아동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의 전환. <한국가족복지학>, 70(2), 5-42.

[34] 기은하·윤명숙 (2025).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14(2), 157-181.

[5] 길태영 (2023). 영 케어러의 가족돌봄 경험: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 적용. <한국과 세계>, 5(6), 227-255.

[54] 김동현·강현지 (2026).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우울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7(1), 275-297.

[6] 김민정·김현주 (2023). 영케어러의 가족돌봄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31(4), 375-405.

[17] 김보경·최유석 (2024).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경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7), 1-37.

[7] 김서영·이재림 (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체계 역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3-32.

[18] 김서현·이나윤 (2024). 조손가정 돌봄 대상자에서 제공자로 다해낸 숙명: 두 조부모를 인생 끝날까지 책임진 가족돌봄청년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76(3), 89-122.

김성경 (2013). 내용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연구: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2001-2010). <청소년복지연구>, 15(3), 1-22.

[35] 김성희·남석인 (2025).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의 작동과 제약: 다중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4(4), 195-238.

[36] 김송이 (2025). 영 케어러 지원 법제화와 정책 쟁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2(2), 277-306.

[37] 김순규 (2025). 가족돌봄 아동의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산업진흥연구>, 10(3), 271-284.

[38] 김아래미·정소연·서홍란 (2025). 가족특성이 가족돌봄청소년의 돌봄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2(3), 181-209.

[8] 김아롱·정익중 (2023). 영 케어러의 가족 돌봄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70(1), 77-105.

[40] 김연정 (2025). 영케어러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리양육가정의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4(1), 223-260.

[39] 김연정 · 김혜미 · 이충권 (2025). 돌봄의 틀에 갇힌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관한 탐색: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28, 103-142.

[1] 김은지 · 황보람 (2022). 지적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청소년의 성장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7, 239-272.

[19] 김재윤 · 김주은 · 진미정 (2024). 가족돌봄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 돌봄 부담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9(3), 3-22.

[9] 김정현 · 박선영 (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0(1), 251-280.

[41] 김지선 · 주영선 (2025). 우리나라 가족돌봄청년은 누구인가?: 행정데이터, 한국의료패널,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72(2), 251-276.

[55] 김지현 · 조윤호 · 김미정 (2026). 영케어러의 돌봄 부담과 삶의 만족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42(1), 1-28.

[20] 김진희 (2024).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8(2), 151-175.

[42] 김혜영 · 김남옥 · 장안식 · 석승혜 (2025). 한국의 영 케어러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가별 유형화 연구: 영국, 스웨덴, 호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8(1), 37-94.

[10] 노혜진 (2023).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현황 분석.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0(3), 75-105.

[21] 노혜진 (2024). 가족돌봄청년 일상의 재구성과 정서적 경험. <보건사회연구>, 44(2), 336-359.

[43] 노혜진 (2025). 니트상태 가족돌봄청년의 생애사: 일, 학업, 돌봄의 위태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한국사회복지학>, 77(2), 7-35.

[11] 노혜진 · 박나리 (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실태 및 심리정서 상태의 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학>, 70(4), 181-213.

대구광역시 (2024).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실태조사. 대구: 대구광역시.

[56] 박병금 (2026).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청소년학연구>, 33(3), 245-273.

[22] 박선희 · 김서현 (2024). 정신질환자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일상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2, 5-42.

[12] 박지영 · 김병철 (2023).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케어러 정책에의 시사점 탐색. <인문사회21>, 14(3), 2115-2130.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현주 (2020). 간호학연구 근거합성을 위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론. <한국성인간호학>, 32(5), 433-439.

[23] 서혜지 · 김교성 (2024). 가족돌봄청년(Young Adult Carer)은 누구인가?: 개념 정의와 규모 및 실태. <사회보장연구>, 40(4), 81-113.

[44] 서홍란 · 김아래미 · 정소연 (2025). 가족돌봄아동 ·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경험과 인식. <한국사회복지교육>, 69, 139-168.

[13] 서홍란 · 홍순혜 · 정소연 (2023). 우리 사회의 가족돌봄아동: KBS 1TV <동행> 프로그램 분석.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23(2), 534-547.

[24] 선미정 (2024).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탐색: 델파이 및 IPA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1(3), 57-87.

[45] 선미정 (2025). 아동권리 관점에서 고찰한 돌봄아동의 가족돌봄경험. <한국사회복지학>, 77(3), 157-177.

[57] 선미정 (2026). 논리모델 기반 가족돌봄청년 집단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성과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69(1), 99-120.

[46] 선미정・유혜선 (2025).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조례 분석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7(1), 1-28.

[2] 선미정・장정은・김진영 (2022).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33-67.

[47] 송미령・송지훈・명준희 (2025). 가족돌봄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과 지원 요구에 관한 질적연구. <공공정책연구>, 42(2), 175-204.

[25] 신인순 (2024).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구. <사회과학리뷰>, 9(2), 399-415.

안주영 (2022).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3, 16-27.

안혜주・이제경 (2025). 국내 대학생의 학업중단 연구동향과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32(3), 389-420.

[48] 양현・신지원・이무원・박혜연・배수영 (2025).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와 미충족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보건사회연구>, 45(2), 543-557.

[58] 와제이컨산・전건우・윤경덕・정규형 (2026).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주거환경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34(2), 413-437.

[26] 유정원・선미정 (2024). 가족돌봄청(소)년의 욕구와 지원전략: 경기도 청(소)년을 사례로. <청소년학연구>, 31(4), 389-413.

유정원・선미정・임선영・김도현・박예은 (2024).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수원: 경기복지재단.

[27] 이가은 외 (2024).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가족돌봄청년 관련 동영상 댓글 분석.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1(2), 45-74.

[28] 이슬기・박광옥 (2024). 가족돌봄청년이 인식하는 돌봄에 관한 연구: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76(4), 91-114.

[29] 이시은・이은아 (2024). 청년기 '생애과업'과 가족돌봄의 경합: 가족돌봄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6(2), 40-72.

[30] 이의빈・김진원 (2024). 장애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돌봄부담과 우울 간 관계: 부모의 장애로 인한 삶의 부정적 변화 인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29(3), 527-546.

[59] 이정민・김태화 (2026).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지지가 우울과 돌봄자 자존감을 매개로 미래 계획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8(2), 39-65.

[31] 이정민・정경아 (2024). 가족돌봄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31(5), 157-179.

[60] 임소진・김준범・이재은 (2026). 강제된 돌봄을 넘어 회복으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 경험 과정과 유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1), 283-319.

[61] 장안서 (202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장애인 가족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42(1), 311-333.

[14] 정소연・서홍란・홍순혜 (2023). 영케어러의 돌봄활동과 그 영향: KBS 1TV <동행> 출연 가족 사례 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61, 151-182.

[49] 조명아・김주현 (2025a). 가족 관계와 성역할 규범 속에서 재편되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수행과 책임. <한국가족복지학>, 72(2), 189-220.

[50] 조명아・김주현 (2025b). 가족돌봄청년의 생애과업 수행 전략: 재편과 단념의 경계에서. <가족과 문화>, 37(3), 291-332.

조성호 (2024). 일본 영케어러의 최근 현황과 지원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9, 97-108.

[51] 조원희・조윤호・최영준 (2025). 영케어러의 발달과업 중요도・수행도 불일치와 영향요인.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22(3), 209-243.

채구묵 (2002).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양서원.

[52] 최규선・김남희 (2025). 문미순의『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에 나타난 영 케어러의 진로와 교육기회 제약에 대한 소고: 자원보존이론과 사회자본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1(4), 57-80.

최영준・김보영・김윤영・임소현・오서은 (2022). 영케어러(Young Carer)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혼합방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62] 최유나・남석인 (2026).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재구성과 주체성 형성 과정: 가족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비판사회정책>, 91, 398-431.

[3] 최윤진・김고은 (2022). 영 케어러(Young Carer)의 돌봄 경험에 대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29(11), 155-184.

최정원 (2025). 장애부모를 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 Young Carer]의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2] 최희경 (2024).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여성학연구>, 34(1), 221-273.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26. 7. 5. 접속). 학술지분류 검색: 사회과학. https://www.kci.go.kr/kciportal/ci/clasSearch/ciSereClasList.kci

함선유 (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19, 34-46.

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Addo, I. Y., Aguilar, S., Judd-Lam, S., Hofstaetter, L., & Poon, A. W. C. (2024). Young carers in Australia: Understanding experiences of caring and support-seeking behaviour. *Australian Social Work*, 77(1), 60-73.

Aldridge, J. (2018). Where are we now? Twenty-five years of research, policy & practice on young carers. *Critical Social Policy*, 38(1), 155-165.

Aldridge, J., & Becker, S. (1993). Punishing children for caring: The hidden cost of young carers. *Children & Society*, 7(4), 376-387.

Arksey, H., & O'Malley, L. (2005).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8(1), 19-3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9). Australian social trends: Young carers. *Canberr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Becker, F., & Becker, S. (2008). Young adult carers in the UK. *London: Princess Royal Trust for Carers.*

Becker, S. (2007). Global perspectives on children's unpaid caregiving in the family: Research & policy on 'young carers' in the UK, Australia, the USA and Sub-Saharan Africa. *Global Social Policy*, 7(1), 23-50.

Becker, S., Dearden, C., & Aldridge, J. (2000). Young carers in the UK: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Research, Policy and Planning*, 8(2), 13-22.

Bowman Grangel, A., McMahon, J., Dunne, N., & Gallagher, S. (2024). Predictors of depression in young carers: A population based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9(1), 2292051.

D'Amen, B., Socci, M., & Santini, S. (2021). Intergenerational car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young and young adult caregivers of older people. *BMC Geriatrics*, 21(1), 105.

Elf, M., Skärsäter, I., & Krevers, B. (2011). The web is not enough, it's a base-an explorative study of what needs a web-based support system for young carers must meet. *Informatics for Health and Social Care*, 36(4), 206-219.

Fung, Y. K., Gardener, C., & Farquhar, M. (2025). Does the Carer Support Needs Assessment Tool (CSNAT) cover the support needs of young carers? A systematic literature search and narrative review. *Palliative Medicine*, 39(9), 965-976.

Hendricks, B. A., Kavanaugh, M. S., & Bakitas, M. A. (2021). How far have we come? An updated scoping review of young carers in the U.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8(5), 491-504.

Joseph, S., Sempik, J., Leu, A., & Becker, S. (2020).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1), 77-89.

Keating, N., & Eales, J. (2017). Social consequences of family care of adult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 and Caring*, 1(2), 153-173.

Kettell, L. (2020). Young adult carers in higher education: The motivations, barriers and challenges involved-a UK study.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44, 100-112.

Lacey, R. E., Xue, B., & McMunn, A. (2022).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young carers: A systematic review. *Lancet Public Health*, 7(9), e787-e796.

Leu, A. et al. (2020). Caring in mind? Professionals' awareness of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in Switzerland.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8(6), 2390-2398.

Leu, A. et al. (2021). Cross-national analysis of legislation, policy and service frameworks for adolescent young carers in Europe. *Journal of Youth Studies*, 25(9), 1215-1235.

Leu, A., & Becker, S. (2017). A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750-762.

Levac, D., Colquhoun, H., & O'Brien, K. K. (2010). Scoping studies: Advancing the methodology. *Implementation Science*, 5(1), 69.

Lockwood, C., Dos Santos, K. B., & Pap, R. (2019). Practical guidance for knowledge synthesis: Scoping review methods. *Asian Nursing Research*, 13(5), 287-294.

Mahoney, K. T., Buboltz Jr, W. C., Soper, B., Doverspike, D., & Simoneaux, B. J. (2008). Content analysis of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Volumes 44-59).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60(3), 246-258.

Peters, M. D. J. et al. (2020). Updated methodological guidance for the conduct of scoping reviews. *JBI Evidence Synthesis*, 18(10), 2119-2126.

Pilato, J. et al. (2024). What characterizes adolescent young carers? A multigroup comparative stud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50(2), e13244.

Pollock, D. et al. (2021). Undertaking a scoping review: A practical guide for nursing and midwifery students, clinicians, researchers, and academic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7(4), 2102-2113.

Rubin, A., & Babbie, E.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6th ed.).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Saragosa, M. et al. (2022). The young carers' journe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0), 5826.

UK Legislation (2014).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van der Werf, H. M., Luttik, M. L. A., de Boer, A., Roodbol, P. F., & Paans, W. (2022). Growing up with a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The impact on and support needs of young adult carer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 855.

Yin, S. (2024). Investigating local policy responses to support care-experienced young people in China-a scoping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57, 107433.

Research Trends in Young Carer Studies in South Korea: A Scoping Review

Youngyoun Jo, Juhee Shin, Sunkyung Kim

Woosong University, Chungnam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domestic research trends on Young Carers in South Korea and identifi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proposed by Arksey and O'Malley (2005), and 62 domestic studies published between 2022 and July 2026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research on Young Carers increased after 2022, with the highest number of studies identified in 2025, and that research expanded across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particularly social welfare. The purposes of the reviewed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exploration of experiences and perceptions;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analysis of social perceptions and discours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evaluation of support projects and program effectiveness; and analysis of research trends. Various terms were used to refer to Young Carers, including "family caregiving youth," "Young Carer," "family caregiving children," "family caregiving adolescents," and "family caregiving youth and adolescents." Seven major issues were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the need to strengthen legal,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social perceptions and stigma; changes in daily life and constraints on opportunities; the need for suppor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are recipients; the need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Young Carers and accumulate further research; and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community-based service delivery systems. In addition, unresolved issues included ambiguity in age criteria, limitations in research design, a narrow scope of study participants, conceptual inconsistency, and insufficient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address academic gaps in the study of Young Carers in South Korea.

Keywords: Young Carers, Family Caregiving Youth, Scoping Review, Research Trends